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평화를 사랑하는 국내외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제1회 제주평화포럼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가 한국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6·15남북정상회담은 우리 한국 민족과 세계평화 역사에 참으로 의미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6·25전쟁 만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한은 적대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냉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저는 바로 그런 시점에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위한 극적인 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전세계가 놀라움과 기쁨 속에 환호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

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과 세계 앞에 햇볕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셋째, 남북은 서로 화해협력해서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의 여러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북한과 대화하고 경제지원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역대 한국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자세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위해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일 공조의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최고 목표이자 그 가능성을 추구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이러한 햇볕정책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미·일·중·러를 위시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와 지도자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하여 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역사적인 합의를 일궈 냈었습니다.

그 첫째는, 남북간에 처음으로 민족통일에 대한 접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당장 완전한 통일은 어렵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해서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종래 일관되게 주장하던 "중앙연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바꿔서 우리 정부의 "1민족 2체제 2독립정부"의 "남북연합제" 통일방안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 왔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마침내 통일정책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미군의 항구적인 한반도 주둔에 대해 북한이 동의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6·15남북정상회담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

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대북안보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다. 통일 이후에도 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일·중·러의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과 평화유지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도 보다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붕괴한 이후에도 서유럽국가들이 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구한 것은 그것이 유럽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김정일 위원장의 상당한 반론을 각오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쪽 신문을 통해서 이미 김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심으로 '어쩌면 김 대통령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다.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의 그러한 답변을 듣고 조상들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감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경제협력, 사회·문화·스포츠 등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남과 북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공동번영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져야만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은 그 자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북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다짐해 온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금년 중에 실현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한반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3,600여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장면은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다시는 민족이 싸우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4개의 협정에 합의하고 경의선 복원공사의 착공과 개성공단 조성사업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올해 들어 미국 부시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북관계의 일시적 정체와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동반 정체상태가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이 결국에는 성공을 거둘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으로,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북한은 물론 주변 4강과 세계 모든 나라의 이익과 평화에의 염원에 합치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도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같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에서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짐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약속도 지키겠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실험을 2003년까지 연기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월 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그동안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정책입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의 대화재개를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미·북 대화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 금강산의 육로관광과 금강산 지역의 관광특구지정 문제

가 남북간에 합의된 것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15일에는 남북간의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의 명의로 정상회담 1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다짐하는 메시지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미·북관계 개선과 병행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미·북관계 역시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의 실현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병행발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역시 성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세계의 열망이며 남·북한과 미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남북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서로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은 장차의 문제입니다. 남북이 서로 안심하고 살고 협력하면서 살다가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남·북한 모두가 '이만하면 통일을 해도 되겠다'고 할 때 통일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참으로 지난한 사업입니다.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햇볕정책은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의 바램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한반도에서의 냉전의 빙벽을 녹이는 햇볕정책에 뜨거운 열기를 보냅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